

대면 선거운동 봉쇄...조직가동·얼굴 알리기 막혀 발동동

총선 D-14

코로나19 여파 확보된 선거운동

노인정·복지시설 못 찾아

지지세력 확보 어려움

SNS 선거운동·전화 홍보만

정책 사라지고 캄캄이 투표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이 크게 줄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 힘들어지는 등 광주·전남 총선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들이 직접 노인정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지지자를 당부하는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일부 후보들이 지지세력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중시설을 겨냥한 선거 운동이 중단되면서 '프레임 선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SNS 제작과 전화홍보 비용만 늘고 있다는 불멘소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여야 각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광주·전남 지역 총선 지역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앞서 각 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도 대면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줄였다.

문제는 수년간 지역구에서 조직을 관리해 온 후보들이 지지세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층 중심의 조직

을 운영해 온 후보군의 어려움이 크며, 민주당의 신인급 후보들도 같은 이유로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한 총선 출마 후보는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해 민주당 후보와 팽팽한 승부가 예상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는 노인당과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도 지지세력을 빠르게 결집할 수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노인층 결집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체 선거구 유권자 중 30~40%를 평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당과 복지시설 등을 통한 지지세 확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통상적으로 각 선거 캠프가 핵심 조직을 평소 집중 관리하고, 선거 기간이 되면 '문어발 형식'으로 핵심 조직원이 다수의 하부 조직원이나 유권자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핵심조직원들이 유권자층을 전혀 만날 수 없어 지지세가 커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어려움은 현역·다선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인 후보들도 대면 선거 운동이 제한되면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명도를 올리지 못해 발판 구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대부분 후보가 전화 선거운동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SNS 선거

코로나19 극복과 총선승리를 위한 호남권선대위 출범 및 광주·전남 선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미래호남권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개호 호남권선대위 상임위원장과 이형석 중앙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송갑석·서삼석 공동위원장, 장세일 호남권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총선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에게 우호적인 유권자 등을 상대로 매일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하거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엔 선거 프레임이 짠 뒤 목욕탕 등지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상대 후보를 꺾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전혀 '목욕탕 팀'을 가동할 수 없다"면서 "선거 프레임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후보 간 정책 경쟁도 사라졌고, 일부 유권자는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생계지원비 홈페이지만 접수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도 지원

지역상품권·선불카드도 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내주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 30일 갑자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자체 생계비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일시적인 혼선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많게는 총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5일은 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하고 같은 달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홈페이지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 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 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 재산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은 크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와 특수고용직, 실직·휴직자 생계비 등으로 구분된다. 모든 지원금을 합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광주시는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 지원한다. 단 가구 구성원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정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이 있는 중복지 가구는 제외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실직·휴직자 생계비 신청은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전남도는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도내 32만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며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도 지급한다. 전남도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등 8만5000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3개월치(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도 시행한다. 연 매출 3억5000만원 이하·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원 조건이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10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신청을 받아 4~5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급복지대상자 ▲정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이 있는 중복지 가구는 제외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와 실직·휴직자 생계비 신청은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이다.

전남도는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도내 32만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며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도 지급한다. 전남도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 농수산업 종사자 등 8만5000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3개월치(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도 시행한다. 연 매출 3억5000만원 이하·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원 조건이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10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읍면동 신청을 받아 4~5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무소속 '민주당 바람' 넘을 수 있을까

광주 5명, 전남 8명 등 13명

전남 동부권 무소속 벨트 주목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불지 주목된다.

역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적게는 1곳에서 많게는 4곳의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등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데다, 지역 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전직 기초단체장까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이들의 경쟁력이 향후 선거결과로 드러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민주당 바람'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면 제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무소속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8명 등 총 13명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17명보다 5명이 줄어든 것으로, 역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숫자다. 광주·전남지역 역대 무소속 후보는 ▲19대 36명 ▲18대 18명 ▲17대 20명 ▲16대 33명 ▲15대 23명 ▲14대 22명이었다.

이처럼 역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무소속 후보들이 나섰고, 돌풍도 일으켰다. 19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주 동구 선거구에서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앞선 18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 4곳의 선거구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다. 광주 남구 강운태 후보와 목포 박지원 후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김영록 후보, 무안·신안의 이윤석 후보가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바람 속에 서도 나주·화순 선거구의 최인기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앞선 16대 총선에서는 강운태(광주 남구)·박주선(화순·보성)·이정일(해남·완도·진도)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반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면서 무소속 후보가 설자리를 잃으면서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을 택한 현역의원들이 상당수인데다, 전직 기초단체장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돌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 현역 의원은 광주 북구갑 김경진, 여수갑 이용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인화 등 3명이다. 이들은 야권통합당인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행을 택했다. 지역 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만큼 민생당보다는 인물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승부를 걸 수 있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남을 김성환,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노관규 후보 등 기초단체장을 지낸 후보도 무소속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들은 지역 내 지지세력이 있는데다, 인지도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들의 지역 내 인물 경쟁력이 유권자 표심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천·여수·광양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무소속 벨트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관련 포인트다. 순천지역의 경우 민심을 이반한 선거구 쪼개기 확정과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인해 민심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총선은 민주당과 민생당의 대결 구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무소속 현역 의원들과 전직 단체장들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선거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